

같이 보기
: 소통N공감

100%
RECYCLED
FABRIC



옷을 입는 것으로

지구를 ——— 지킨다

컨셔스 패션 *Conscious fashion*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ESG 경영처럼 최근 우리 귀에 들려오는 단어들의 공통점은 바로 친환경을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이나 트렌드라는 점이다. 하지만 왠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기에 조금 어렵거나 번거롭지는 않을까, 개인의 나하고는 멀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글 편집실



옷도 환경을 오염시킨다

유행도 많이 타고 그 속도도 빠른 분야는 아마 패션 산업일 것이다. 보통 분기나 계절별로 새로운 유행과 의류, 소품들이 생산되는데 근 몇 년 사이에는 그 주기마저 1~2개월이 되는 아이템도 있을 정도로 패션 산업의 유행 속도는 빠르다. 그리고 그만큼

생산되는 상품이나 아이템 숫자도 많고, 무엇보다 유행이 지나면 판매되지 못하고 재고 처리되거나 폐기되는 상품은 더 많다. 결국 주기별로 새로운 상품이 대량 생산되고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패션 산업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패스트푸드처럼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하는 저렴한 가격대의 의류)은 그만큼 쉽게 구매하고 쉽게 버리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반복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폐기되는 상품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점이다. 의류를 만드는 주요 소재인 화학섬유의 경우 폐기 처리되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이 걸린다. 옷 한 벌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물, 전기 같은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며, 화학제품이나 표백제 사용으로 물은 오염되고, 세탁 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발생하여 우리 생태계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단계부터 오염시킨다.

또한 옷을 제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120억t으로, 국제선 비행기나 선박이 한 해 동안 발생시키는 탄소의 합보다 더 큰 수치라고 한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을 비롯한 의류 소비가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패션 산업이 전 세계 탄소의 1/4을 소비하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다. 컨셔스 패션은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최근 패션 산업에 친환경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컨셔스 패션은 다양한 범주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우선 의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소재 선정이나 제조 공정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한 예다. 목화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비료나 살충제 등을 최소화하는 것처럼 말이다. 양털이나 유칼립투스 나무, 사탕수수 등의 천연소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천연 소재는 자연 분해도 잘되고 재활용이 비교적 쉬우며, 무엇보다 가공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합성 섬유를 대체하기 위하여 업사이클링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폐의류의 원단을 활용한 가방이나 페트병을 가공해 원단 소재로 만드는 것 등이다. 폐 소방복과 폐소방 호스, 폐현수막을 이용한 가방 브랜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한다고 이름 붙은 것들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움직여야 한다. 인류의 역사가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위한 발명과 개발을 따라왔기 때문에 친환경을 실천하려면 왠지 그 발자취를 역행하는 기분이다. 그리고 친환경이란 길은 어딘지 모르게 번거롭거나 돈이 많이 드는 느낌이다. 하지만 컨셔스 패션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살짝 바꾼다. 환경을 살리는 것 역시 아름다우면서 편할 수도 있음을, 방법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

 **의식 있는 소비, 의식 있는 패션**
이렇듯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패션 즉,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

